

민생 지키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자, 2024년 해양안전대책 협력방안 논의

- 강도형 해수부 장관, 해경·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2일(월) 세종청사에서 해양경찰청, 광역시·도, 지방해양수산청,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.

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 기관은 2024년 자체 해양안전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특히,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일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.

회의를 마치면서 강 장관은 “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은 민생 안정으로,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과 생업 종사자들에게는 해양안전이 곧 민생 안정이다.”라고 강조하며, “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.”라고 당부했다.

한편, 해양수산부는 올해 △여객선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화재 예방·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△여객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민간 위탁운영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. 또한, △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원 안전감독관 등 전담인력 확보, △어선원 안전조업교육 시설 확충 및 △낚시어선의 안전요원이 승선하여야 하는 야간영업 시간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해사안전국	책임자	과 장	최성용	(044-200-5810)
	해사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김세준	(044-200-5846)